

## 전문대학 조리과 학생들의 진로태도 유형별 성격 연구

### The Characteristics of Career Attitude on the College Students Specializing in Hotel and Culinary by Personality Type

경남정보대학 호텔외식조리과  
조교수 김 종 훈

Dept. of Foodservice Culinary of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Assistant Professor : Kim, Jong-H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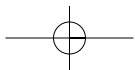
#### ◀ 목 차 ▶

I. 서론	IV. 결과 분석
II. 이론 연구	V. 결론
III. 연구 설계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character of career attitude according to the group type which was identified and measured by Q methodology. The subjects were 38 junior students attending hotel & food service culinary management at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For the study, 88 variances of Lee's career attitude were used. In the career attitude items, 26 variances of career attitude were selected by factor analysis. The 26 variances explained 70.44% of all variances. Twenty-six variances were used on Q sorting from which 9 group types were identified by SPSS window program, and these 9 occupied 75.627% of all variance. The groups were classified into two parts extroversion and introversion. Four groups(1, 3, 6, and 9) were identified as extroversion, and 5 groups(2, 4, 5, 7, and 8) as introversion. Group 1 was explained 10.270% of all groups, group 2(14.352%), group 3(10.270%), group 4(7.527%), group 5(6.314%), group 6(5.726%), group 7(5.469%), group 8(5.006%), and group 9(4.145%). Group 1 was named as "active challenge type", group 2 as "passive consideration type", group 3 as "realistic leader type", group 4 as "conservative challenge oriented type", group 5 as "conservative harmony type", group 6 as "arbitrary plan oriented type", group 7 as "realistic stability type", group 8 as "conservative creation type" and group 9 as "conservative reality type".

**주제어(Key Words):** 진로태도(career attitude), Q방법론(Q methodology), 유형별 성격(the character of group), 호텔외식조리과 학생(hotel & food service culinary student)



## 1. 서론

개인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선상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진로에 대한 선택은 개인의 생애를 통해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선택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최효순, 2002). 개인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가 직업적 태도와 흥미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직업적 태도와 흥미를 고려하여 개인의 진로에 대한 태도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90년대 이후 가치관의 변화, 직업의 다양화와 전문화 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직업이 자신에게 적합한 것인지를 찾는 데 매우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미래 직업 세계의 전망에 대해 불확실하고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이기학, 한종철, 1997).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은 중고교 시절부터 자신의 적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진로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학 진학 그 자체에만 매달리는 교육현실에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과 전공학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진로 선택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대학생활의 적응에 실패하고 직업세계로의 진입을 앞두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방황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최기덕, 2002; 김충기, 1989). 특히 전문대학생들은 일반 4년제 대학생들에 비하여 대학에 머무는 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 전문 기술을 익혀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큰 편이다(이재수, 2003). 따라서 전문대 학생들이 대학 2년 혹은 3년 동안 자신의 흥미를 발견하고 이에 맞는 능력을 개발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데 있어 전문대 학생들이 어떤 진로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진로 방향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봉희, 2003).

전문대학교육 협의회에서 실시한 전문대학에서의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산학협동과 체계적인 진로 지도체제의 미흡이라는 사실이 지적되어지고 있다(유지선, 2004; 나승일, 2002). 또한 일부의 전문대학에서는 개인 심리측정 도구인 MBTI를 활용해서 개인의 심리측정을 하고 있지만 20% 이하의 낮은 적용률로 인한 합리적인 진로 지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리과의 경우도 개인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경험에 의한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에 개개인의 내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면 보다 더 쉽게 개인의 적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 지도를 실시할 수 있고 이직이나 전직을 어느 정도는 감소시킬 수 있다. 현재 심리학이나 교육학 등에서는 진로태도 유형화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

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조리 분야에서는 그 실정이 전무한 형편이다. 특히, 근래에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하여 재취업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내재적 심리특성을 파악하고 이것을 취업으로 연계시켜, 첫 직장이 평생직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의 주제로 제기하고자 한다.

진로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 적인 사항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개개인의 특성을 전혀 표현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정량적(定量的) 평가보다는 개개인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정성적(定省的)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리와 학생들 개인의 성향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성향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인 Q방법을 적용하여 전문대학 조리와 학생들의 진로태도 성숙도의 유형화를 통한 조리와 학생들의 군집별 내재적 심리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출되어진 요인에 Q방법을 적용하여 집단의 유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각각 유형들의 강한 긍정 진술문과 강한 부정 진술문을 구분하여 유형의 성격을 파악하여 군집별 특성을 알고자 하였다.

## II. 이론 연구

### 1. Q 방법

#### 1) 개념

Q방법론은 인간의 태도와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철학적, 심리학적, 통계적 개념과 심리측정과 관련된 개념을 통합한 방법론으로서 인간의 주관성을 분석할 수 있는 특수한 통계 기법으로 가설 생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와 이론의 검증과 같은 확인적 연구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김정, 2003) 심리학과 교육학분야에서 유용한 도구로서 이론을 검증하고 개인 내 차이를 밝히며 심리적 유형을 발견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Kerlinger, 1986; 최원주, 2002).

1953년 Q방법이 처음 소개되어진 이래 지난 50~60년 동안 사회과학 영역에서 Q방법론에 관한 연구와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는 1,500여편 이상이 되고 있다(최원주, 2002). Q방법론은 연구 대상이 특정 변인을 규정하고 그 변인을 대표하는 진술문을 작성하거나 수집해 변인의 연구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적은 수의 이해당사자들이나 대상자들로 하여금 진술문을 가급적 정규분포가 되도록 분류하게 한 뒤 이를 변량 분석과 요인분석, 요인정렬의 순서로 통계 처리하는 것이다(김정순, 2003). Mekweon과 Thomas는 Q방법은 사회 현상에 대하여 개인의 주관적 관점이 잘 전달 될 수 있으며, 이 주관적 의사의 객관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

였으며, 대상자들의 자아준거(self-reference)의 특성을 파괴하거나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연구자에 대한 외적 참조 체계에 의해 타협이 되거나 혼란을 받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다고 하였다(김현수, 김유미, 1997).

Q방법론을 통계적 용어 및 절차에 맞추어 정리해보면 설문조사(Survey Method)의 한 특수한 형태로서 응답자들로 하여금 측정대상에 대한 태도나 의견을 표명하는 일련의 카드들로 미리 정해진 분포에 맞게 순서적으로 또는 무더기로 벌려 놓게 하여 주어진 카드 값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응답자들이 자아준거 진술(Self-referent statements)을 분류함으로써 자신의 태도를 조작적으로 규정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Q방법은 지각, 개인적 구조, 신념체계 등은 자기중심적이라는 전제하에 개인 내부에 자리하고 있는 신념체계 및 태도를 서열화 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주관적 견해나 사고 등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태도 구조의 유사성 및 상이성에 따라 개인들 간의 인지를 서술할 수 있고, 조사 대상자들이 Q분류를 통해 자아 준거 진술의 순위를 매기면 진술문 속에 포함된 모든 의견이 다른 의견들과 비교하여 서열화 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Q 표본은 소표본을 중심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주관을 중심으로 하므로, 개인 중심으로 어떤 유형을 추출하는 심층적 조사이다.

## 2) Q기법을 활용한 연구 절차

Q 기법은 과학적 연구의 일반적 과정과 다를 바 없으나 나름대로 독특한 특색이 있다. 모든 연구의 과정은 문제의 진술에서 시작하여 가설 설정, 표본의 추출, 측정도구의 결성, 자료의 수집과 분석, 가설의 검증, 그리고 결론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채서일, 2002). 그러나 Q기법은 진술문의 수집, 표본, 대상자의 선정, Q분류, 유목평균, 변량분석, 상관계수, 요인분석, 요인 해석의 과정을 거친다.

### (1) 진술문의 수집

Q기법은 사람들의 주관적 특성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진술문은 연구주제와 관련되어야 하며 주관적 생각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Stephenson(1953)에 의하면 Q기법의 진술문은 인간 상황(human situation)을 왜곡하지 않고 과학적 설명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정신적 속성의 다양한 상황”을 다룰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다양한 상황은 진술문의 수집과 범주화(표본)로부터 출발하여 연구 대상의 선정과 Q분류과정을 거쳐서 분석된다. 진술문은 주로 문헌 연구와 면접에 크게 의존하나 문헌연구보다는 면접을 통하여 더 많은 진술문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어떤 입후보자의 인상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면 그 입후보자에 대한 생각 등을 유권자에게 질문해서 진술문을 수집할 수 있다. Cassel(1958)은 행복의 척도 Q진술문을 제작하기 위하여 대학원생 500

명에게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특성을 진술하게 하여 4,000여개의 진술문을 수집했다. 김준권(1994)은 자기 노출 척도 Q진술문을 제작하기 위하여 대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노출 시키고 있는 내용과 노출 시키지 않는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 60문항, 관련 연구논문과 서적을 통하여 50문항 총 110문항의 진술문을 수집하였다.

### (2) 진술문의 표본

Q기법에서 Q표본은 모집단에서 선택한 진술문 또는 이와 유사한 자극이다. Q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Q-sort에서 사용되어야 할 Q표본 즉 진술문 선택에 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전체 연구의 질이 Q표본 선택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신뢰성이 있고 타당한 Q-set 구성 원리는 다른 질적 척도 구성 원리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척도 구성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할 1차적 관심은 문항의 대표성이다. Q-set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연구하고자하는 차원의 중요한 측면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택해야 한다.

모든 문항은 공통적인 참조의 틀(The frame of reference)에 따라 수집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Nunnally(1967)는 문항의 모집단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Q방법론에서 진술문의 수와 관련한 연구자의 견해를 살펴보면, Kerlinger는 통계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0-90문항, Schlinger(1969)는 55-75문항 정도가 적절하다고 하였다. Thomson(1980)은 Q문항 작성 시 필요한 문항 수는 피험자수의 2배보다도 그 문항이 많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김현수, 김유미, 2000), Brown(1980)은 50 문항이면 충분하다고 하였다. 김홍규(1990)는 40-60개 정도가 일반적이며 20개 혹은 80개의 진술문을 사용한 논문도 흔히 볼 수 있다고 하였다.

Q분류에 사용하는 진술문의 수는 요인분석의 기초가 되는 상관계수의 신뢰도를 규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을수록 좋지만 문항이 너무 많으면 분류자가 부담과 문항의 비교 문제 때문의 반응의 신뢰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적당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문항에 대한 연구 동료나 타인들의 비판적 평가와 통계적 절차를 거쳐서 최종문항을 결정해야 한다. 자극 문항은 구성하는 유형에 따라 자연 표본과 기성표본, 구조화 표본과 비구조화 표본 등으로 구분된다. Q표본 유형에 대한 우월의 차는 없으며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가장 적절한 Q표본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김현수, 김유미, 1997).

### (3) 대상자의 선정

Q방법은 개인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의 내적 중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방법이므로 P표본의 수와 선정에는 아무런

## 4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4호, 2006

제한을 받지 않는다(김상근, 김성주, 2003). Q 연구에서는 Q진술문을 이론적으로 구조화한 상황에서 연구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연구문제와 관련되어진 집단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Q방법을 활용한 연구에서의 피험자 수는 40-60명 정도를 선정한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본 P표본의 수를 살펴보면,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 유형 분석에서 P표본의 수를 30명으로 선정하였으며(박광국, 주효진, 김옥임, 2001), 텔레비전 기업광고에 대한 수용자의 주관성 연구에서는 P표본을 34명 선정하였고(김정훈, 1997), 영화 관람 동기에 대한 Q방법론적 연구에서는, P표본을 40명으로 선정하였다(남궁영, 1999).

## (4) 결과 분석

Q분류 결과는 유목 평균, 변량분석, 상관계수, 요인분석, 요인배열, 요인해석 등의 과정을 통해 해석된다. 유목 평균 분석은 개인의 일반적인 정보와 내적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개인 내의 한 유목과 타 유목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상대적 수치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유목 평균들을 순위로 나열하여 비교함으로써 그 개인의 내적 구조가 파악된다. 변량 분석은 Q 분류 결과 얻은 피험자의 점수는 그 측정이 독립측정이기 때문에 그 총점, 평균치, 표준편차가 다 같다. 하지만 그 점수구조는 각 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다른 점수구조는 각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실시한다. 상관계수는 Q분류에 의해 대상자들 간의 상관을 계산하고 요인화 한다. 사람 간, 집단 간의 상관계수를 발견해 내는 것은 Q기법의 중요한 특징으로 반응자간 또는 집단 간의 상관계수를 통해서 반응자 상호관계를 파악한다. 또한 상관관계는 변인간의 공변 관계로 관계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상관계수이다. 요인 분석은 한 검사의 타당도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능력 및 성격의 구조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다(채서일, 2002).

요인분석을 피험자 간에 계산한 상관계수 행렬표를 바탕으로 공통요인을 추출하는 것으로 많은 수의 변수를 보다 적은 수의 규모 또는 요인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요인분석의 기본 정리를 한 검사의 전체변량(Total variance of a measure)은 공통 요인 변량과 특수 요인(Special factor variance) 및 오차 변량(Error variance)의 총합이다. 다음과 같은 서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요인배열을 통해 Q기법의 마지막 단계인 요인을 해석하게 된다. 큰 부하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인 것을 찾아서 추출한 요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Q진술문을 기초로 하여 해석한다.

## 2. 선행연구

이해춘(1993)은 Q방법을 이용하여 기존의 인성 검사 문항 267문항 중에 일부 문항 70문항을 추출하여 Q분류를 실시

하였다. 학생들의 인성 특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P표본을 상위 중위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인성 특성 7개 문항 영역을 조사하였으며, 김정훈(1997)은 텔레비전 기업광고에 대한 수용자의 주관성을 알아보고 이러한 결과로서 광고 제작자에게 의도하는 기업 이미지 창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Q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 하였다. 연구의 결과 4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제 1유형은 이성적 광고 분석형이었고, 제 2유형은 크리에이티브 추구형, 제 3유형은 감성적 메시지 추구형, 제 4유형은 유형 민감형으로 나타났다. 박영환(1997)은 Q기법을 활용한 신체 활동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사용된 P표본은 일반 대학생과 운동선수 각각 남·녀 30명씩 총 120명을 선정하였다. Q표본은 Kenyon이 개발한 신체활동에 대한 태도 검사 59문항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대학생 집단의 신체활동 유형은 정서추구형, 건강 체력추구형, 건강추구형, 모험추구형, 고행·사고추구형, 사고·건강체력추구형, 7개 유형으로 분석되었으며, 운동선수 집단은 사고·모험추구형, 미·고행추구형, 적극적 운동 참여형, 고행·모험추구기군형, 건강체력추구형, 고행기군-정서·건강 체력 추구형, 정서추구형으로 분류되었다. 남궁영(1998)은 영화 관람 동기에 대한 Q방법론적 연구를 수행 하였는데, 연구 결과 4개의 Q요인으로 나타났다. 제 1유형은 사회적 가치추구형, 제 2유형은 개인적 가치추구형, 제 3유형은 이용가치 추구형, 제 4유형은 오락가치 추구형이었다.

김영숙(1999)은 유아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신념체계분석을 위해 유아 교육기관 교사 15명과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2학년 학생 15명을 P표본으로 하고, Payne(1980)의 유치원 교육 과정 Q-Set의 문항 63문항 중 48개를 Q표본으로 선정하여 Q요인을 분석한 결과 실천 규범적 신념, 이론 개방적 신념, 절충적 신념으로 유형화 하였다. 그 외 이창현(2000), 박광국, 주효진, 김옥임(2001), 김창남, 유상훈(2001), 김명섭(2003), 김상근, 김성주(2003), 신원식, 이경은(2003), 최일도, 성낙훈, 심창섭(2005) 등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 III. 연구 설계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 지역의 전문대학 조리과 학생들의 진로태도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진로 지도 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도출해내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산 경남정보대학

호텔외식조리과 학생 98명을 모집단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차 예비 조사 단계에서는 모집단 199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기학(1997)의 연구에서 완성된 진로태도 측정도구가 아닌 3차 예비 문항(88문항)을 전수 조사하여 문항을 제거한 후 이들 모집단 중에서 P표본 38명을 추출하였다. 선정 기준은 2005년 현재 취업 및 진학을 준비하는 2학년 학생들의 학번으로 고유 번호를 부여한 다음 난수표(random number table)를 이용하여 단순 무작위로 학생을 추출하여, 본 연구를 위한 수행하기 위한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문제에서 제시한 세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 인식의 주관적 구조를 유형화하는데 적합한 Q방법(Q-Methodology)적 접근으로 조리과 학생들의 진로태도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진로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이기학의 진로태도 측정 도구 예비문항 88문항을 기준으로 하여, 26문항으로 축소한 후 조리과 학생들 중에서 진로에 가장 관심이 높은 2학년 3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위에서 선정된 3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Q분류판에 각 문항을 자세하게 읽어보게 한 후 강제로 Q분류를 하게 하였다.

Q분류판을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Z점수 도출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Z값의 평균과 집단 유형별 Z값과의 차이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진로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본 도구를 모색함과 동시에 개인적 성향을 최대한으로 반영한 측정 방법인 Q방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육학과 심리학, 사회학 분야에서 Q방법을 적용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적 공간적 범위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부산지역으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주 대상은 2005년 현재 경남정보대학 호텔외식조리과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3. 측정 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이기학(1997)의 연구에 사용된 진로태도 측정 3차 예비 연구 8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기학(1997)의 연구에서 3차 예비 연구 88문항을 개발하는 과정은 선행 연구를 통한 진로태도 요인 8요인: 결정성, 준비성, 확신성, 참여성, 계획성, 현실성, 독립성, 타협성을 도출하였으며, 진로태도 관련 8가지 요인들

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알기 위해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고등학교 시절 진로 선택 및 결정 과정에서 가장 고민했던 내용을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조사를 하였다.

이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질문지를 작성한 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진로태도 측정 도구의 개발과정은 쌍별 비교법, 자유 응답법, 개인면담, 정형화 된 질문지법을 통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직면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결정성, 목적성, 준비성, 확신성, 독립성의 5가지 진로태도에 대한 구인을 선정하고 3차에 걸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되어진 88문항이었으며 5개 요인들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75에서 .88의 범위를 보였으며 전체 진로태도 측정도구와의 상관은 .56에서 .81까지의 범위를 보였고, 하위 요인간의 상관은 .17에서 .41까지의 범위를 보였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진로태도 측정 문항 88문항을 대상으로 하여 고유값 1이상의 문항들을 최종적으로 Q분류를 위해 사용하였는데, 총 26문항이 도출되었으며, 위의 26문항의 총 분산설명력은 70.44%였다.

## 4. 자료 처리절차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4 단계를 거쳐서 자료 처리를 하였다.

제 1단계는 진술문 88문항의 항목별 중요도를 파악하고 전문대학 호텔외식조리과 학생들의 진로태도 성향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제 1단계에서는 진로태도 평가 도구의 변수들을 제거 및 통합하기 위해 경남정보대학 조리과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진로태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별 문항을 제거 및 통합하고자 한다.

제 2단계는 제 1단계에서 추출한 문항을 대상으로 하여 Q방법을 적용하여 유형화를 시키고 각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위의 2단계 과정은 다시 5단계의 세부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진술문 분류 단계로 P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9단계의 Q분류판에 각 진술문을 부착하게 하는 단계이다. 각 단계별 문항의 수는 스티븐슨(Stephenson, 1953)의 Q분류 단계별 진술문의 수에 기준을 두어 강한부정인 -4단계는 1문항, -3단계는 2문항, -2단계는 3문항, -1단계는 4문항, 0단계는 6문항, 1단계는 4문항, 2단계는 3문항, 3단계는 2문항, 강한 긍정인 4단계는 1문항으로 배치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제거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문 26문항을 강한 긍정과 강한 부정으로 먼저 나누고 보통의 진술문은 중간에 놓는다. 강한 긍정 문항과 강한 부정의 문항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는 각 문항들의 z값을 도출하였으며, 세 번째는 상관관계를 구하여 Q분류자간 반응의 상관관계를 밝혀 Q분류한 연구 대상자들 사이의 상관계수를 추출하였다. 네 번째

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군집을 밝혔으며, 요인은 대상들의 유사 군집이다. 하나의 Q분류에 비슷하게 반응한 개개인은 하나의 군집을 형성할 것이고, 이들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여 강한 긍정 진술문의 특성과 강한 부정 진술문의 특성을 분석하여 군집별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3단계는 각 군집에 해당하는 P표본들을 대상으로 성격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표본들이 지향하는 진로방향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공통성격과 진로 방향의 공통분모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위한 도구는 안창규의 적성 탐색 검사의 문항들을 기초로 하여 각 분야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문항들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도출하였다. 먼저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성격을 직접 구술하도록 한 다음 도출된 문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안창규, 1997).

마지막 4단계는 각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2단계에서 밝힌 강한 긍정 문항과 강한 부정 문항, 제 3단계의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각 집단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 IV. 결과 분석

### 1. 집단 유형도출결과

#### 1) Q요인의 형성

요인분석은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할 것인지 또는 응답자간의 상관 분석을 할 것인지에 따라 R분석과 Q분석으로 구분되어지는데(구미향, 2005),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 간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서 Q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집단의 유형을 나누어보았다. 아이겐 값(Eigen value) 1이상의 집단을 도출한 결과 총 9개의 집단 유형이 나타났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9개 집단 유형의 총 분산설명력은 75.627%였다. 세부 유형별 집단 분산 설명력을 살펴

면, 집단 1이 16.817%였으며, 집단 2가 14.352%였다. 집단 3이 10.270%였으며, 집단 4가 7.527%였고, 집단 5가 6.314%였으며, 집단 6이 5.726%였다. 집단 7이 5.469%였으며, 집단 8이 5.006%였고, 집단 9가 4.145%였다.

#### 2) 상관관계 분석

각 유형간의 유사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형간의 상관계수의 범위는 .01에서 .75로 집단 간의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집단 9와 집단 5, 집단 6, 집단 7은 상관계수가 .50이상으로 보통 이상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나머지 집단 간에는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세부 집단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집단 1과 집단 3, 집단 8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집단 2와 집단 4, 집단 5, 집단 6, 집단 7, 집단 9도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집단 3과 집단 8이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집단 4와 집단 5, 집단 6, 집단 7, 집단 9도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집단 5와 집단 6, 집단 7이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집단 6과 집단 7, 집단 9도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유형별 아이겐 값과 분산 설명력

	고 유 값	분 산 력	누적 분산력
집단 1	4.372	16.82	16.82
집단 2	3.733	14.35	31.17
집단 3	2.670	10.27	41.44
집단 4	1.957	7.53	48.97
집단 5	1.642	6.31	55.28
집단 6	1.499	5.73	61.01
집단 7	1.422	5.47	66.48
집단 8	1.302	5.01	71.48
집단 9	1.078	4.15	75.63

〈표 2〉 집단별 상관관계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집단 5	집단 6	집단 7	집단 8	집단 9
집단 1	1.000	.25	-.21	.11	.29	.36	.43	-.01	.54
집단 2		1.000	.17	-.09	-.24	-.29	-.34	.01	-.44
집단 3			1.000	.07	.20	.25	.29	-.01	.37
집단 4				1.000	-.10	-.13	-.15	.00	-.19
집단 5					1.000	-.35	-.40	.01	-.52
집단 6						1.000	-.50	.01	-.64
집단 7							1.000	.01	-.75
집단 8								1.000	.02
집단 9									1.000

〈표 3〉 P-sample 특성

	샘플명	요인값	성 별	연 령
집단1	10	1.435	여	20
	11	-2.479	남	25
	19	1.517	여	25
	22	-2.115	여	21
	31	1.348	여	21
집단2	34	-2.016	여	21
	23	-2.083	여	21
집단3	27	-1.456	여	21
	5	1.318	남	25
	29	-1.438	여	27
집단4	35	2.743	여	21
	1	1.288	남	25
	13	2.051	여	21
	16	-2.568	여	21
집단5	28	1.198	남	24
	32	1.864	여	24
	24	1.826	남	25
집단6	37	2.717	남	25
	8	1.690	여	21
	20	1.849	여	21
집단7	21	-1.609	여	21
	6	-2.223	여	21
	18	1.312	여	21
	25	-1.535	여	21
	26	-1.610	여	21
집단8	30	-1.818	여	21
	2	-1.476	여	21
	4	1.568	여	21
	7	-1.221	여	21
	9	-1.552	여	21
	14	-1.451	여	21
집단9	15	-1.529	남	24
	33	2.076	여	21
	3	1.567	여	21
	12	1.243	남	25
	36	1.590	남	25
집단9	38	-1.345	남	24
	39	2.253	남	26

## 3) 연구대상(P-sample)의 특성

P-sample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및 요인 가중치는 〈표 3〉와 같다. 요인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집단의 성격을 높게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다. 집단 1에는 6명, 집단 2에는 2명, 집단 3에는 3명, 집단 4에는 5명, 집단 5에는 1명, 집단 6에는 3명, 집단 7에는 5명, 집단 8에는 7명, 집단 9에는 6명이 할당되었다. 집단 1의 연구대상에는 남학생이 1명, 여학생이 5명이었고, 집단 2는 여학생이 2명이었다. 집단 3은 남학생이 1명, 여학생이 2명이었으며, 집단 4는 남학생이 2명, 여학생이 3명이었고, 집단 5는 남학생 2명으로 구성되었다. 집단 6은 여학생이 3명이었고, 집단 7은 여학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집단 8은 여학생 6명 남학생 1명으로 구성되었고, 집단 9는 여학생이 1명 남학생이 4명으로 구성되었다.

## 2. 문항을 준거로 한 각 집단의 특성

## 1) 1집단의 특성

집단 1의 문항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한 부정 문항으로 “부모님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비록 내 적성과 맞지 않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원한다” 진로 결정에 대해 주체성이 강하게 나타남과 동시에 “원한다고 해서 다 그런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의 직업을 미리 결정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각자 먹고 살 몫은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직업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문항에 강한 부정으로 답해 진로에 대해 준비성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집단 1의 특성을 타 집단과 비교하여 보면 문항 12, 문항 18, 문항 21번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부정의 정도가 Z평균 점수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강한 긍정 문항을 살펴보면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잘 할 자신이 있다”라고 답해 직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으며,

〈표 4〉 집단 1의 강한 부정과 강한 긍정 문항 비교

번호	강한 부정	Z점수	Z 평균	차 이
12	사람들은 각자 먹고 살 몫은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직업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	-0.192	-0.012	-0.180
18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0.229	0.068	0.161
21	원한다고해서 다 그런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의 직업을 미리 결정할 필요가 없다	-0.192	0.02	0.212
14	비록 내 적성고하는 맞지 않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원한다	-0.040	0.056	0.096
번호	강한 긍정	Z점수	Z 평균	차 이
9	실제 좋아하는 것이 있지만 내 능력 밖이어서 다른 직업을 찾고 있다	-0.222	-0.052	0.170
20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잘할 자신이 있다	0.064	0.048	0.016
13	진로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물어 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은 스스로 내려야 한다	0.075	0.012	0.063
17	자신이 원하는 진로로 가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놓아야 한다	0.216	0.075	0.141
26	학교를 졸업한 후 편입을 할 것인지 취업을 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 놓았다	0.220	0.000	0.220
6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몇가지 있는데 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	-0.230	-0.010	0.230

“진로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물어 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은 스스로 내려야 한다”는 문항과 “학교를 졸업한 후 편입을 할 것인지 취업을 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 놓았다”라는 문항을 통해 진로 결정의 주체성을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좋아하는 것이 있지만, 내 능력 밖이어서 다른 직업을 찾고 있다”는 문항을 통해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집단 2 특성

집단 2의 문항 특성을 살펴보면 “비록 내 적성하고는 맞지 않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원한다”, “원한다고 해서 다 그런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의 직업을 미리 결정할 필요가 없다” 문항에 강한 부정으로 집단 1과 같이 주체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집단 1보다는 준비성 측면에서는 약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강한 긍정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로 진로에 대해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음과 직업에 대한 준비성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집단 3 특성

집단 3의 문항 특성을 살펴보면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한지를 알아보는데 별 관심이 없다”라는 문항에 강한 부정의 의견이 제시되어 미래 직업군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 3은 문항 22에서 다른 집단의 Z평균점수와 비교해 보았을 때 높은 점수를 나타내 미래의 유망한 직종에 대해 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학교를 졸업한 후 편입을 할 것인지 취업을 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 놓았다” 문항에 강한 긍정이라는 응답이 제시되어 집단 2 유형보다는 진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4) 집단 4 특성

집단 4의 문항별 특성을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해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주위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편이다”, “사람들은 각자 먹고 살 몫은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직업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선택한 진로의 장래성이 불투명해서 불안하다”의 문항에 강한 부정으로 응답해 진로에 대한 확신성과 주체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집단 4의 강한 부정 문항 중에서 문항 3이 다른 집단의 Z평균 점수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 본인의 진로 결정 시 주위의 의견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잘 할 자신이 있다”, “진로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은 스스로 내려야 한다”의 문항에 강한 긍정으로 답하였다. 결론적으로 집단 4는 주체성과 진로에 대한 결정성, 직업에 대한 자신감이 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진로에

〈표 5〉 집단 2의 강한 부정과 강한 긍정 문항 비교

번호	강한 부정	Z점수	Z 평균	차 이
21	원한다고해서 다 그런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의 직업을 미리 결정할 필요가 없다	0.1517	0.02	0.132
14	비록 내 적성하고는 맞지 않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원한다	0.166	0.056	0.110
번호	강한 긍정	Z점수	Z 평균	차 이
5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0.199	-0.032	0.167
7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0.180	0.024	0.204

〈표 6〉 집단 3의 강한 부정과 강한 긍정 문항 비교

번호	강한 부정	Z점수	Z 평균	차 이
12(2)	사람들은 각자 먹고 살 몫은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직업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0.095	-0.012	-0.083
22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한 지를 알아보는데 별 관심이 없다	-0.118	0.008	-0.126
번호	강한 긍정	Z점수	Z 평균	차 이
5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0.0319	-0.032	0.064
7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0.209	0.024	0.185
26	학교를 졸업한 후 편입을 할 것인지 취업을 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해 놓았다	-0.100	0.000	0.100



〈표 7〉 집단 4의 강한 부정과 강한 긍정 문항 비교

번호	강한 부정	Z점수	Z 평균	차 이
8(2)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해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직업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0.016	0.012	0.004
3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주위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편이다	0.152	0.008	0.144
12	사람들은 각자 먹고 살 몫은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직업을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한다	0.144	-0.012	0.156
15	내가 선택한 진로의 장래성이 불투명해서 불안하다	-0.110	0.000	0.110
번호	강한 긍정	Z점수	Z 평균	차 이
20(3)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잘 할 자신이 있다	0.202	0.048	0.154
13(2)	진로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은 스스로 내려야한다	-0.100	0.012	0.112

대한 불안감은 타 집단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

#### 5) 집단 5 특성

집단 4의 문항별 특성을 살펴보면 “나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의 문항에 강한 부정으로 답해 진로에 선택의 성공에 대한 확실성을 볼 수 있으며, “진로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물어 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은 스스로 내려야한다”의 문항에 강한 긍정으로 답해 진로에 성공에 대한 확실성과 주체성을 볼 수 있다.

#### 6) 집단 6 특성

집단 6의 문항별 특성을 살펴보면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주위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편이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나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의 문항들에 강한 부정으로 답해 진로 선택 시에 자신의 의견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6에서 답한 강한 부정 문항 중에서 문항 25에서 다른 집단의 Z평균 점수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대해 성공의 확실성을 갖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 선택을 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진로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물어 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은 스스로 내려야한다”,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잘 할 자신이 있다”는 문항에 강한 긍정으로 응답해 본인의 진로 결정에 고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면 직무에 대한 자신감도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 7) 집단 7 특성

집단 7의 문항별 특성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각자 먹고 살 몫은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직업을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한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한 지를 알아보는데 별 관심이 없다”, “나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에 강한

〈표 8〉 집단 5의 강한 부정과 강한 긍정 문항 비교

번호	강한 부정	Z점수	Z 평균	차 이
25	나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0.120	-0.056	0.064
번호	강한 긍정	Z점수	Z 평균	차 이
13	진로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은 스스로 내려야 한다	0.229	0.012	0.217

〈표 9〉 집단 5의 강한 부정과 강한 긍정 문항 비교

번호	강한 부정	Z점수	Z 평균	차 이
3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주위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편이다	-0.012	0.008	0.020
18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0.114	0.068	0.046
25	나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0.099	-0.056	0.155
번호	강한 긍정	Z점수	Z 평균	차 이
11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 선택을 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0.106	0.016	0.122
13	진로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물어 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은 스스로 내려야 한다	-0.010	0.012	0.022
20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잘 할 자신이 있다	-0.020	0.048	0.068

〈표 10〉 집단 7의 강한 부정과 강한 긍정 문항 비교

번호	강한 부정	Z점수	Z 평균	차 이
12(2)	사람들은 각자 먹고 살 몫은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직업을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한다	0.008	-0.012	0.020
18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0.144	0.068	0.076
22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한 지를 알아보는데 별 관심이 없다	0.083	0.008	0.075
25	나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0.050	-0.056	0.006
번호	강한 긍정	Z점수	Z 평균	차 이
5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0.027	-0.032	0.059
7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0.118	0.024	0.094
19	근무시간도 짧고 작업환경도 좋은 직업을 원한다	-0.100	-0.020	0.080
20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잘 할 자신이 있다	-0.080	0.048	-0.128
26	학교를 졸업한 후 편입을 할 것인지 취업을 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해 놓았다	-0.010	0.000	0.010

부정의 의견을 제시해 직업 결정 시 본인의 주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래 유망직종에 관심이 많고 직업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근무시간도 짧고 작업환경도 좋은 직업을 원한다”,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잘 할 자신이 있다”, “학교를 졸업한 후 편입을 할 것인지 취업을 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해 놓았다”의 문항에 강한 긍정으로 답해 진로에 대한 확신성이나 준비에 대해 적극적인 면은 집단 3과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현실적인 근무환경에 대해 많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 집단 8 특성

집단 8의 문항별 특성을 살펴보면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 지 자신이 없다”, “사람들은 각자 먹고 살 몫은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직업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에 강한 부정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미리 정해져 있다”, “나는 하고 싶은 일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잘 할 자신이 있다”, “학교를 졸업한 후 편입을 할 것인지 취업을 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해 놓았다”의 문항에 강한 긍정으로 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결정은 해 놓은 상태이지만 그 진로에 대한 확신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집단 8의 강한 긍정 문항을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보면 문항 20에서 타 집단에 비해 높은 Z점수를 보여 본인이 선택한 직업에서 직무 수행의 자신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9) 집단 9 특성

집단 9의 문항별 특성을 살펴보면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 선택을 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각자 먹고 살 몫은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직업을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자주 생각해 보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의 문항에 강한 부정으로 답해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과 진로의 확신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집단 8의 강한 부정과 강한 긍정 문항 비교

번호	강한 부정	Z점수	Z 평균	차 이
10(2)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0.159	0.004	0.155
12(5)	사람들은 각자 먹고 살 몫은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직업을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한다	-0.048	-0.012	0.036
번호	강한 긍정	Z점수	Z 평균	차 이
1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져 있다	0.030	0.020	0.010
6	나는 하고 싶은 일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	-0.000	-0.01	0.010
7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0.090	0.024	0.114
20(3)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잘 할 자신이 있다.	-0.150	0.048	0.198
26	학교를 졸업한 후 편입을 할 것인지 취업을 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해 놓았다	-0.100	0.000	0.100

〈표 12〉 집단 9의 강한 부정과 강한 긍정 문항 비교

번호	강한 부정	Z점수	Z 평균	차 이
11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 선택을 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0.083	0.016	0.099
12	사람들은 각자 먹고 살 몫은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직업을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한다	-0.036	-0.012	0.024
16	앞으로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자주 생각해 보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	-0.010	-0.080	0.070
번호	강한 긍정	Z점수	Z 평균	차 이
1(2)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미리 정해져 있다	0.000	0.020	0.020
2	나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현재에도 앞으로의 직장 생활에 대해 상상해본다	0.000	-0.024	0.024
4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면을 먼저 생각한다.	0.114	-0.20	0.138
17	자신이 원하는 진로로 가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계획은 세워 놓아야한다	0.000	0.075	0.075
20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잘 할 자신이 있다	0.071	0.048	0.023

그리고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미리 정해져 있다”, “나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현재에도 앞으로의 직장 생활에 대해 상상해본다”, “자신이 원하는 진로로 가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계획은 세워 놓아야한다”,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잘 할 자신이 있다”의 문항에 강한 긍정으로 답했으며, 강한 긍정 문항 중에서 문항 1에 대한 긍정도가 타 집단의 Z점수 보다 높게 나타나 장래 직업에 대한 계획성이 다른 집단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 3. 심층면접

#### 1) 심층면접 기준

개별 면접에 사용되어진 질문지는 Holland가 개발한 진로 이론에 근거하여 안창규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연구 개발한 것이다(안창규, 1997). Holland는 세상의 모든 직업들과 사람들의 직업적 적성은 실제적 유형, 탐구적 유형, 예술적 유형, 사회적 유형, 기업적 유형, 관습적 유형의 여섯 가지로 나뉘어 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각 유형을 평가 할 수 있는 세부적인 문항을 제시하였다. 유형을 평가하기 위해 활동적 흥미, 성격, 유능감, 가치, 직업으로 나뉘어서 각 문항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면접 기준을 활동적 흥미, 성격, 유능감, 3가지 분류의 문항들 중에서 각 성격 유형을 대표하는 문항 각 1문항씩 추출하여 면접자를 인터뷰하였다.

#### 2) 제 1 집단 면담결과

개인 면담 결과 전체 인원의 50%이상이 동의한 문항들을 도출해냈다. 집단 1은 밝은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말수가 많았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편이었다. 예술적인 감각이 있었으며, 수학을 좋아 하는 편이었고, 외향적이었다. 계산 능력이 빠르고 털털대는 편의 성격이 있었고, 개방적이고 봉사정신이 강한 편이었고,

〈표 13〉 성격 유형 평가 질문 문항

면접 기준	면접 문항
활동적 흥미	기계 조립을 좋아 한다 책을 좋아 한다 음악을 좋아 한다 봉사정신이 있다 회계 장부 정리를 좋아 한다
성격	스릴, 모험 영화를 좋아 한다 수학을 좋아 한다 논리적이다 감수성이 풍부하다 처음 보는 사람과 쉽게 친해진다 계획하고 통솔하는 일을 좋아 한다 적극적이다 정리정돈을 잘 한다 먹어보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유능감	기계 조립을 잘 한다 계산 능력이 있다 예술에 대한 재능이 있다 동정심이 많은 편이다 다른 사람들을 잘 다루는 능력이 있다 노트나 장부 같은 것을 정리 정돈 잘한다

자료 출처: 안창규, 적성탐색검사: 개인용, 한국가이던스, 1997, pp.1-17(논자 재정리)

정리 정돈 부분에서 약했고, 모험성이 있었으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답답하다고 응답하여 활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본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리더형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참모형이라고 답한 면담자도 있었다.

#### 3) 제 2 집단 면담 결과

제 2집단의 성격은 내성적인 성향으로 낮가림이 심하였고, 검소하였으며, 소심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진 집단이었다. 기계 조립을 좋아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으며, 계산 능력이 약하고,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하였다. 감수성은 둔한 편이고, 친구가 많지 않다고 하

였으며, 자신의 주장이 강하지 않은 집단이었으며,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답답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편지 쓰기를 즐기는 집단으로 수학보다는 국사를 더 좋아한다고 하였다. 위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는 내성적인 성향이 강한 집단이었다.

#### 4) 제 3 집단 면담 결과

제 3 집단은 솔직하며, 적극적이고, 낮가림이 별로 없다고 하였으며, 말이 많은 편이고, 논리적이지 않고, 덜렁거리는 성격의 집단이었다. 처음 보는 사람과 쉽게 친해진다고 하였으며, 동정심이 많고, 적극적이며, 수학적 능력은 떨어지고, 변화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답답함을 느낀다고 답을 하였다. 제 3 집단은 제 1집단과 유사한 면을 보이기는 하지만 수학적 능력 측면과 변화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단 1의 성격과 차이점을 보였다. 제 3 집단의 성격을 요약하면 외향적이며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기지만, 현재 생활에서 새로운 도전을 꺼리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강하였다.

#### 5) 제 4 집단 면담결과

제 4 집단은 내성적이고 검소하고, 말이 적었으며, 보수적인 성격이 강한 집단이며, 기계를 조립하는 것을 즐기지 않았으며, 논리적인 성격은 아니었고, 처음 보는 사람과 쉽게 친해지지도 않으며, 낯선 음악 등에 따라 감정변화가 심한 성격이었으며,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을 즐기는 성격이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했으며, 스티일이나 멜로 영화처럼 감정의 변화를 다룬 영화를 좋아했으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에 소심하지 않았으며, 책을 좋아하는 집단이었다. 위 집단의 특징은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보다 혼자 무언가를 하는 즐기는 집단이었다.

#### 6) 제 5 집단 면담결과

제 5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었다. 남과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주로 져 주는 편이라고 했으며, 꼼꼼하면서도 소심하다고 했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했으며,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남들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가는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했으며, 계산 능력이 있으며, 계획성도 있다고 했고,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 자신들이 감수성이 예민하다고 평가했으며 예술적인 소질은 없는 편이라고 했다.

#### 7) 제 6 집단 면담결과

제 6 집단은 밝고 쾌활하고, 말이 많으며, 외향적인 것을 중시하였으며, 개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즐기기도는 친하고 싶은 사람과 말을 하려는 경향

이 강하고 계획성은 있으나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수리능력은 중간 정도였으며, 봉사정신도 약한 편이었다. 집단 1과는 성격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면을 보이고는 있으나, 논리성이나 계획성 측면에서는 집단 4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 8) 제 7 집단 면담결과

제 7집단은 낮을 많이 가려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부분에 소극적이고, 말이 적은 편이었으며, 검소하였으며, 낯선 음악에 따라 감정의 변화가 없으며, 기계 조립을 싫어하였다. 그러나 세밀하고 꼼꼼한 일을 잘하였으며, 계획을 할 때에는 실천 가능한 것만 세우며, 변화를 싫어하고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였고, 모험도 즐기지 않았다. 토론에 참가하면 주로 듣는 편이었으며,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하였다.

#### 9) 제 8 집단 면담결과

제 8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의 공통된 성격을 살펴보면 내성적, 논리적이라고 했으며, 말수는 적은 편이었으며, 기계 조립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었으며, 봉사정신은 보통이나 약한 편이었으며, 계획성이 있으며, 정리정돈을 잘하는 편이고, 계산 능력은 약한 편이었으며, 낯선 음악에 대해 감정의 변화가 약한 편이었고, 처음 보는 사람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다고 했다. 본인들 스스로 리더형이라기 보다는 참모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다.

#### 10) 제 9 집단 면담결과

제 9 집단의 면접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집단 구성원 스스로 본인들은 보수적이고, 논리적이며, 말이 많은 편이라고 했으며, 기계를 조립하는 것을 좋아하며 낯선 음악에 따라 감정변화가 약하다고 했으며, 사치스러운 면도 있으며, 꼼꼼한 면도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계산 능력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자료 정리를 잘 못하고 예술적인 소질은 없으며, 봉사정신도 약하다고 했으며, 하루 종일 집에서 지내도 지루하지 않다고 했으며, 계획은 잘 세운다고 했고, 변화를 즐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리더형이라고 응답하는 면담자들이 많았다.

## IV. 결 론

### 1. 외향적 유형

#### 1) 제 1 집단 = 진취적 도전형

진로 태도 문항의 강한 긍정 문항과 강한 부정 문항과 성격 면담 결과를 통해 나타난 제 1유형은 성격이 밝고, 말이 많으며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처음 보는 사람과 쉽게 친해지고 예술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계산 능력이 빠르

다. 모험을 즐기며 정적인 것보다 동(動)적인 것을 선호하였으며 자신의 주장이 강하지 않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계획성 있게 사용하지 않았다. 의사 결정 시 개인의 의견을 중시하며 미래에 대한 준비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미래 직업 선택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유형으로 “진취적 도 전형”이라고 명하였다. 위 유형의 특성을 요약하면 활동성이 있으며, 사고가 개방적이고, 의사 결정 시 개인의 판단을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본인의 적성과 가장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였고, 직무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의 능력과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고려하는 현실감을 갖고 있는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형이었다.

## 2) 제 3 집단 = 현실 적응의 리더형

제 3 유형의 성격은 솔직하고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상대방을 대할 때 말을 많이 하고 재미있게 표현을 하지만, 논리적인 면이 상대적으로 약하였으며, 현실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하였다. 정리 정돈을 잘하며, 활동적인 면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변화를 좋아하지 않았고, 계산 능력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다. Q 분류 카드의 결과에서도 보여 주듯이 미래의 진로에 대해 준비해야 할 사항과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에 대해 강한 불안감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본인의 진로를 어느 정도 결정해 놓았다고 답해 불안감과 진로 결정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통해 제 3 유형을 “현실 적응의 리더형”으로 명명하였다. 뛰어난 계산 능력과 말하기 좋아하고, 낮가림이 없으며,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적극적으로 준비하려는 경향이였다.

## 3) 제 6 집단 = 독단적 - 계획추구형

제 6 유형의 성격은 밝고 쾌활하고 말이 많으며, 외모를 중시하며 외향적이며, 개방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즐기기도는 친하게 지내고 싶은 소수의 사람들과 말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계획성은 있으나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계산 능력은 중간 정도였고, 봉사 정신도 약하였다. Q 분류 카드의 진로 태도에 대한 의견의 특징을 살펴보면 직업 선택 시 주위 사람들에게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진로 결정 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한다고 하였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진로에 대한 성공의 확신감이 있었으며, 미래 자신이 선택할 직업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자신이 있다고 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제 6 유형을 “독단적 계획추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 4) 제 9 집단 = 보수적 - 안정지향형

제 9 유형은 보수적이며, 논리적이고 말이 많은 편이었다. 기계를 조립하는 것을 좋아하며, 주위 환경에 따라 감정 변화

가 약하다고 하였고, 사치스러운 면과 꼼꼼한 면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반면 계산 능력은 좋지 않았으며, 자료 정리를 잘 못하고 예술적 소질이 없으며, 봉사정신이 약하고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다고 했으며, 계획은 잘 세우고 변화를 즐기지 않는다고 했다. Q 분류카드를 통해 진로태도를 측정한 결과 진로 결정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진로 결정은 미리 미리 해야 한다고 했으며, 미래 직업 생활에 대해 상상을 해 보기도 함, 장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결정되어 있다고 했으며, 직장 생활에 대해 강한 동경을 하며, 원하는 진로를 위해 계획을 세운다고 했으며, 원하는 직업의 업무 수행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제 9 유형을 “보수적 - 안정지향형”라고 명명하였다.

## 2. 내향적 유형

### 1) 제 2 집단 = 수동적 - 심사숙고형

제 2 유형의 성격은 외향적이지 않고 내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기계 조립을 좋아하는 꼼꼼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대부분의 꼼꼼한 성격에서 나타나는 특징처럼 변화를 좋아하지 않았고 현실 상황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고 개인적인 생활을 즐기며, 계산 능력은 약하지만 계획을 잘 세우고, 자신의 주장이 강하지 않고, 글쓰기를 즐겼다. Q 분류 카드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서도 직업 결정은 미리 해 두어야 한다고 했으며, 자신의 의견에 충실하였으며, 진로 선택에 대해서는 강하게 불안해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알고 싶고 그 일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 2) 제 4 집단 = 보수적-도전 지향형

제 4 유형의 성격은 내성적이며, 보수적 성격이 강한 집단으로 고집이 있으며, 논리적인 성격이 약하며, 처음 보는 사람과 쉽게 친해지지 않으며, 주위 환경에 쉽게 감정 변화가 일어나며, 혼자 있는 생활을 즐기고, 스티어나 멜로처럼 감정의 변화를 다룬 영화를 좋아하였으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지 않았다. Q 분류 카드에 의한 진로 태도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의사 결정을 할 때 주체성이 있고, 동시에 외부에 조언을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미리 진로를 결정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장래의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성과 직업에 대해 확신성을 갖고 있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 제 4 유형을 “보수적-도전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 3) 제 5 집단 = 보수적 화합형

제 5 유형의 성격은 보수적인 성격이 강한 집단으로 소심

하고, 꼼꼼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주로 양보하는 편이라고 했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 내성적 성격이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계산 능력과 계획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다. Q 분류 카드에 의한 진로 태도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진로 성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진로 결정의 최종 주체는 자신이라고 답을 했다. 위의 결과를 통해 제 5유형을 “보수적-화합형”으로 명명하였다.

#### 4) 제 7 유형 = 현실적 안정 지향형

제 7 유형은 내성적이며, 소극적이고, 세밀하고 꼼꼼하며, 주위 환경에 따라 감정적인 변화가 적으며 실천 가능성이 있는 일만 계획하고,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고, 토론 참가 시 주로 듣는 편이었다. Q 분류카드의 진로태도에 대한 의견의 특징을 살펴보면 직업의 근무 조건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진로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알고 싶어하며, 선택한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그대로 반영해 주었다. 위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제 7유형을 “현실적 안정추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 5) 제 8 유형 = 능동적-심사숙고형

제 8 유형은 내성적이며, 말은 적은 편이었다. 기계 조립을 좋아하며, 논리적이고, 계획성과 예술적 소질이 있으며, 정리 정돈을 잘한다고 하였다. 주변 환경에 따라 감정의 변화가 약하고, 처음 보는 사람과 쉽게 친해지지 못한다고 했다. Q 분류 카드에 의한 진로태도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선택한 진로의 성공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으며, 장래 직업 결정에 대해 적극적이었고, 미래 진로에 대해 미리 결정을 해 놓았으며, 한 가지 진로가 아닌 여러 개의 진로를 선택한 후 이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다. 여러 개 진로들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의미는 한 가지 진로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고가 유연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진로를 선택한 후 그 진로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이 선택한 진로 분야에 대한 업무 수행의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제 8 유형을 “능동적 심사숙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본 연구의 성격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계량적(計量的) 연구라기보다는 연구 대상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質的) 연구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 대상자 개개인이 선호하는 직종과 직무에 대한 종단적 후속 연구가 요구되어야 한다. 동시에 각 레스토랑에서 업무 분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적이다. 연구 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종단적 후속연구와 동시에 업무 분장의 성격과 담당자의 자격 요건에 대한 연구 또한 후속연구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구미향(2005). 정서행동 문제아가 지각하는 두려움의 유형 분석 : 방법론적 접근. *한국아동학회지*, 26(1), 90.
- 김명섭(2003).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기대유형 분류와 상관관계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근, 김성주(2003). TV프로그램 선호도에 관한 주관성 연구. *주관성 연구*, 8, 62.
- 김영숙(1999).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신념체계분석: Q방법론적 접근, *아동학회지*, 20, 199-211.
- 김 정(2003). 고등학교 특기 적성교육에서 기타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순(2003). 언론보도에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 유형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훈(1997). TV기업광고의 효과연구. *주관성연구*, 2, 34-57.
- 김준권(1989). 자아개념 Q-SET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창남, 유상훈(2001). Q방법론을 통한 지역주의 연구. *주관성 연구*, 6, 13-18.
- 김충기(1989).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9.
- 김충기(2003).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8.
- 김현수, 김유미(2000). Q방법론. *교육과학사*, 52-53.
- 김홍규(1990). Q방법의 이해와 적용.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10.
- 나승일(2002). 교육인적자원관리 직업교육 법제 정비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12.
- 남궁영(1998). 영화관람 동기에 대한 Q방법론적 연구. *주관성 연구*, 3, 85-116.
- 박광국, 주효진, 김옥임(2001). 조직 내 내부 고발에 대한 인식 유형분석. *한국 행정학보*, 35(1), 165.
- 박영환(1997). Q기법을 활용한 구체적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원식, 이경은(2005).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 -Q방법론의 활용-. *사회보장연구*, 21(1), 59-84.
- 안창규(1997). 적성탐색검사: 개인용. 한국가이던스.
- 유지선, 민선향, 허영주(2004). 전문대학경력개발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4.
- 이기학(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학, 한종철(1997). 고등학생의 성별 및 계열별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정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234-237.
- 이봉희(2003). 몰입경험이 진로 태도 성숙 및 진로 결정 효

- 능감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재수(2003). 전문대학 디자인학과 및 전공 졸업생의 진로 지도에 대한 연구. 디자인학 연구, 7, 127.
- 이정근(1980). 진로지도와 진로상담. 중앙적성출판사.
- 이창현(2000). 탈북자들의 남한방송 수용과 문화적응. 한국 방송학보, 14(2), 151-186.
- 이해춘(1993). 인성특성의 분류를 위한 Q-기법적 분석. 원 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채서일(2002). 사회과학조사방법론. 학현사. 558.
- 최귀덕(2002). 전문대학 관광계열 학생들의 직업의식 분석 자료를 통한 진로지도 방안. 문화관광연구, 4(2), 165.
- 최원주(2002). 브랜드이미지 유형화를 위한 브랜드개성의 Q방법론적 접근. 광고학연구, 15, 187.
- 최일도, 심창섭, 성낙훈(2005). 가족단위 골프가 가족구성 원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Q방법론적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4(1), 577-585.
- 최효순(2002). 초기 청소년들의 진로태도 성숙과 사회 환경 및 개인 변인과의 인과 분석.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rown, S. R. (1980). Political Liteature and the Response of the Reader. *Experimental Studies of Interpretation, Imagery, Criticism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 (김현수, 김유미 재인용, 2000).
- Cassel, R. N. (1985). *The Ego Strength W-Sort Test Manual*. Chicago Illinois, Psychometric Affliates.
- Gati I., Givon,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524.
- Kerlinger, F. H. (1986).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 (3rd eds). New York, Holt, Finehavr and Winston.
- MeKweon, B. F., & Thoms, D. (1978). *Q Methodology*. Bewbury Park, CA, SAGE, 1978.
- William Stephenson (1953). *The study of Behavio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년 10월 22일 접수, 2006년 1월 27일 채택)